

2022 하반기 고려대학교 채용박람회

# “현직자의 구체적인 조언이 많은 도움 됐어요”

채용 담당자와 1대1 대화  
맞춤형 상담으로 진로 설계  
직무 적합성·채용 과정 위주

2022 고려대학교 채용박람회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SK미래관 1층 로비와 최종현홀에서 열렸다. 과거 화정체육관에서 진행하던 채용박람회는 2019년 이후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개최로 대체됐으나 올해 3년 만에 재개됐다. 이번 행사에는 80개 기업이 참여, 67개 부스가 운영됐다. 행사를 주최한 경력개발센터에 따르면 행사에는 약 3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방문했다.

채용박람회는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오프라인 행사 참여 사전 신청을 받았다. 당일에는 사전 신청 없이도 현장 접수 및 상담이 가능했다. 학생들은 부스 앞 QR코드를 활용해 커리어 톡 애플리케이션에서 상담카드를 작성한 후 상담에 참여했다. 관심사나 희망 직무를 찾기 위해 참석한 학생들도 있었고, 현실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해 참석한 학생들도 있었다. 졸업을 앞둔 학생은 채용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으로 박람회를 찾았다. 마지막 학기를 보내는 이강민(대학원·전기전자공학부) 씨는 “원서를 쓰기 전에 정보를 얻기 위해 참여했다”고 말했다.

상담의 주된 내용은 직무 적합성 및 구체적인 업무 내용, 채용 프로세스, 조직 문화



LG생활건강 부스에서 학생들이 1대1 상담을 받고 있다.

및 복지 등이었다. 채용담당자들은 학생별로 적성에 맞는 직무를 추천하기도 했다. 강필구(정보대 컴퓨터17) 씨는 “이력서를 준비해 보여드렸더니 직무나 절차를 추천해 준 점이 좋았다”고 밝혔다. 오비맥주 인사팀 권재현 씨는 “학생들이 작성한 상담카드를 바탕으로 생산 혹은 영업 분야를 추천한다”고 언급했다. 실무적인 일에 관한 조언 외에 심리적인 조언을 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DX 부문 LED 사업부 김초희 씨는 “학생들이 충분한 인재임에도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는 태도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열린 마

음으로 습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학생들을 위한 상담 외에도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가 마련됐다. 사전 신청을 한 학생들을 위해 사은품을 제공했고, 상담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 행사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마스크나 사운드 바 등을 선물로 받았다.

온라인에서는 메타버스 채용박람회도 열렸다. 1대1 상담회만 진행한 오프라인 행사와 달리 온라인에서는 기업별 설명회도 개최됐다. 13일부터 16일까지는 기업별 설명회가 진행됐고, 1대1 상담회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어졌다. 온라인 행사에는 오프라인



상담에 참여한 학생들이 삼성전자 DS부문 부스에서 상품 추첨을 하고 있다.

에서 보지 못한 기업들을 만날 수 있었고 맵 내 보물찾기, 포토존 인증 이벤트 등 경품 이벤트도 마련됐다.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한 고은채(문과대 영문18) 씨는 “정보를 찾아보기는 해도 실제 현직자들에게 듣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고 대화를 통해 회사의 장점이 더욱 와닿았다”고 전했다. 2학년 A씨는 “저학년의 경우 가벼운 마음으로 오기도 하고 관심 분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질문에 한계가 있다”며 “저학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준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력개발센터 직원 오수경 씨는 “이번 행사의 주

안점 중 하나는 SK미래관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라며 “로비와 홀을 이용한 행사는 개관 이래 처음”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편리성과 거리 면에서 공간적인 이점이 있었고, 다양하게 참여한 부스들의 배치 또한 긍정적으로 본다”고 전했다.

오는 22일과 23일에도 온라인 채용박람회가 추가로 열린다. 경력개발센터는 학생들과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연간 1회 진행하던 채용박람회를 2회로 늘려 진행할 계획이다.

글 | 심수연 기자 sue@  
사진 | 문원준·한다빈 기자 press@

## 세종캠 교직원 식당, 자율배식 제한에 이용자 불만

운영방식 변경 공지 없이  
“물가 상승으로 운영 어려워”

본교 세종캠퍼스 교직원 식당이 이달부터 자율배식을 제한해 불만을 가진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생들은 자율배식을 제한할 뿐 아니라 바뀐 운영방식을 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직원 식당 관계자는 물가 상승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학교는 아직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현재 세종캠퍼스는 교직원 식당과 학생 식당 두 곳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회관에 식당이 하나 더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았다. 한 끼에 5500원인 교직원 식당은 교직원만 이용했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학생들에게도 개방했다. 자율배식이었지만, 이번 달부터 메인

메뉴의 배식량을 제한하고 있다. 교직원 식당은 지난 1일 불고기, 5일은 불맛 불고기, 구이를 그릇에 나눠 담아 배식했다. 7일에는 후라이드 치킨을 3조각만 가져갈 수 있도록 제한했다. 공정대 18학번인 A씨는 “메인 메뉴의 배식량이 너무 적다”며 “조금 더 늘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승재(공정대 정부행정22) 씨는 “맛있는 음식을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어서 교직원 식당에 자주 갔다”며 “갑자기 양을 제한한다고 해서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자율배식 제한 사실은 어디에도 공지되지 않은 상황이다. 진소현(공정대 경제통계학부22) 씨는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양을 제한하는 건 이해하나 미리 공지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식당 관계자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는 일할 직원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지난 2년간 1

억5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해 현상 유지될 경우 폐업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당 측의 가격 1000원 인상 건의를 받은 학교 측은 교직원을 상대로 식당 가격 인상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나 찬반 비율이 비슷하게 나와 가격 인상을 거부했다. 식당 측이 500원으로 낮춰 다시 건의했지만, 학교 측의 거부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식당 관계자는 “지금은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자율배식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가격이 조금이라도 인상된다면 자율배식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학교 측은 자율배식 제한에 대응하고 있지 않다. 교직원 식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생복지팀은 “학교에 있는 모든 식당이 어렵다고 호소해 난감하다”며 “조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글 | 최민서 기자 frog@  
사진 | 김태윤 기자 orgnmind@



교직원 식당 이용자가 자율배식 제한으로 그릇에 나눠 담긴 메인 메뉴를 가져가고 있다.

2022년 2학기

고대신문  
수습기자 모집

3학기 이상 활동 가능자  
(서울캠, 세종캠)  
모집대상

선발절차

문자메시지로 개별 면접 및  
논술 시험 시간 공지

장학금 및 취재비 지급

모집분야

취재부, 사진부, 미디어부  
(디자인, 영상)

지원방법

open@kunews.ac.kr로  
10/2(일)까지 지원서 제출

문의

이원호 편집국장  
010-4024-4740  
김시현 취재1부장  
010-5093-6936